노후의 주거복지서비스 요구에 대한 성별 차이*

유 병 선(경희대학교 연구원)
홍 형 옥(경희대학교 교수)

Ⅰ. 서 론

2004년 우리나라의 현재 65세이상 인구는 4,171천명으로 전체인구 중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자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6.8%, 여자인구중 65세 이상노인은 10.5%로 노인인구의 성비[1]는 65.8%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05). 노인인구 중에서 남자노인 대비 여성 노인의 초과현상은 노인인구의 여성화(feminization of elderly population)로 표현되는데, 이는 단순히 인구학적으로 남자인구보다 여자인구의 숫자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심리적 측면, 임상적 측면, 사회적 측면, 경제활동 측면, 가족관계 측면 등 제 분야에서 성별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사회적 함의를 가진다.

대개의 사회, 특히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차지한다. 여성들의 경우 성별과 연령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이중고를 받게 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과 부양이 중요한 사회과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김정석, 2005). 안경숙(2005)은 부부가구에 비해 독신가구는 연령은 높고 생활수준은 낮은 편으로 나타나 이는 바로 혼자 사는 여성 노인의 심각성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의 평균수명차이에서 오는 노인성비차이는 노인문제의 중요변수가 된다.

2005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노인의 경제·신체·정서적 도움의 수혜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만60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노인이 받는 각종 도움을 조사한 결과, '경제적 지원'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수혜율이 높았고, '집안청소·세탁·식사준비'는 남자노인의 수혜율이 93.1%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5).

노인성별에 따른 서비스 요구차이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첫째,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길기 때문에[2] 자연적으로 노인의 유배우자율에 성별 차이를 보이며, 이것은 여성노인단독가구의 부양, 서비스, 주택을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노인성별에 따른 서비스요구차이는 남녀의 차이를 고려한 서비스전달을 요구하게 된다.

사회복지 중 주거보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주거보장 및 주거서비스는 노인단독가구의

* 본 연구는 2005년도 BK21 사업에 의해 지원받았음.

1) 성비(sex ratio)는 여자 인구 100명당 남자인구의 비율로 표시한다.

2) 2001년 현재 평균수명은 76.5세, 남자 72.8세, 여자 80.0세이며, 여자가 남자보다 7.2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국내에서는 노인주택 문제에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지만,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에 근거하여 노인주택에서의 서비스문제를 심도 있게 성별에 따라 수행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러한 배경하게 본 연구는 예비노인을 대상으로 노후의 주거복지서비스 필요도를 성별에 따라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성별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1) 한국 노인 인구의 성비율 차이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0년을 기점으로 총인구의 7%를 상회하여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4년을 기준으로 65세이상 인구는 4,171천명으로 전체인구 중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자인구 중 65세이상 인구는 6.8%, 여자인구 중 65세이상 인구는 10.5%를 차지하고 있다. 65세이상 인구의 성비는 2004년 65.8%이다.

<표 1> 성별 고령인구 추이

(단위 : 천명, %, 여자 100명당)

	1990	1994	2000	2003	2004	2010	2020	2030
65세이상	**2,195**	**2,542**	**3,395**	**3,969**	**4,171**	**5,302**	**7,667**	**11,604**
구성비	5.1	5.7	7.2	8.3	8.7	10.7	15.1	23.1
성 비	**59.8**	**59.0**	**62.0**	**65.0**	**65.8**	**69.7**	**75.2**	**78.3**
< 남 자 >	822	943	1,300	1,564	1,655	2,177	3,291	5,097
구성비	3.8	4.2	5.5	6.5	6.8	8.7	13.0	20.4
< 여 자 >	1,373	1,599	2,095	2,405	2,516	3,125	4,377	6,507
구성비	6.4	7.2	9.0	10.1	10.5	12.7	17.3	25.8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 평균수명의 국제비교 >

(단위 : 년)

국 가	년 도	남자	여자	차이(여-남)
한 국	2001	72.8	80.0	7.2
스 페 인	2001	75.6	82.9	7.3
슬로바키아	2001	69.5	77.6	8.1
폴 란 드	2001	70.2	78.4	8.2
프 랑 스	2001	75.5	83.0	7.5
헝 가 리	2001	68.2	76.5	8.3
30개국 평균		74.4	80.4	6.0

자료 : 일본, 「2002년 간이생명표」 (http://www.mhlw.go.jp)
OECD, 「OECD Health Data」, 2003 (http://www.oecd.org/home)

2) 노인성별에 따른 유배우율(법적 배우자의 생존율)

성비 격차는 자연히 유배우율(rate of married)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을 훨씬 앞지르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즉, 남자의 평균수명이 여성보다 적기 때문에 미망인으로 노후를 보내는 여성 노인의 숫자가 독신으로 지내는 남자 노인의 숫자를 훨씬 능가하게 된다. 2000년 65세 이상 인구의 혼인상태를 보면 유배우 52.0%, 사별 47.0%, 이혼 0.7%, 미혼 0.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자의 경우 유배우가 85.4%이고 사별이 13.5%인데 반해 여자의 경우 유배우가 31.3%에 불과하고 사별은 67.6%였다. 이러한 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심화되어 70-79세 여성의 유배우율은 25.6%, 80세이상은 7.4%로 노인문제는 곧 여성문제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표 2> 65세이상 인구의 혼인상태별 분포

(단위 : 천명, %)

	전 체					남 자					여 자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65세이상	3,372	0.3	52.0	47.0	0.7	1,287	0.3	85.4	13.5	0.8	2,084	0.3	31.3	67.6	0.7
65~69세	1,376	0.4	67.0	31.6	1.0	594	0.3	90.9	7.7	1.0	782	0.4	48.8	49.8	1.1
70~79세	1,519	0.3	47.2	51.8	0.6	560	0.3	84.3	14.7	0.6	959	0.3	25.6	73.4	0.6
80세이상	477	0.2	23.6	75.8	0.3	134	0.2	65.0	34.3	0.3	343	0.3	7.4	92.0	0.3

자료 : 통계청,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 노후의 주거복지 서비스 요구

노인의 사회적 측면 중 생활패턴에 큰 변화를 주는 요인으로서 주거지 이동을 들 수 있다. 자녀 곁을 떠나 노인주택 혹은 다른 형태의 노인전용주거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사회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가지 의미에서 해석된다(이인수, 2003). 첫째, 노인주거시설로의 입소는 결혼 후 수십년 동안 상호 정서적, 물질적 부양관계를 유지해 오던 자녀로부터 그리고 사회의 기본 생활단위인 가구로부터 벗어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Goldschneider, 1989). 둘째로는 오랫동안 생활해 오던 주거환경을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하므로 적응행동이필요하고, 셋째로는 자신의 의식주와 건강관리 등 생명유지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노인주거시설 직원)에게 의존하는 것이다(Pynoos & Regnier, 1993).

이러한 노인전용주거시설로의 이주는 노인 주거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며, 그 중에서도 관리서비스는 노인전용주택의 입주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영국 보호주택(sheltered housing)의 입주이유는 상주하는 관리인(warden)이 있어 심리적으로 보다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미국노인집합주택(congregate housing) 거주자는 노인기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한 공간을 찾아 이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Eckert & Murrey, 1984).

국내에서는 상당수 노인이 서비스 때문에 노인전용주택으로 이주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3)에서 600명 이상 노인들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40%는 여건이 허락한다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면서라도 노인들만의 전용 주택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노후에 직면하게 되는 일상생활의 보조 및 의료관리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고, 유지관리의 편리성 때문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주택의 공용공간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공간제공여부에 따라 서비스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공용공간에 대한 성별차이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성별에 따라서 노인시설의 관리운영을 건강상태에 따라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는 비율이 여자는 52.9%인 반면 남자노인은 32.9%로 나타났으며, 공동시설의 남녀구분 사용을 반대하는 여성노인이 39.0%로 남자노인(20.8%)보다 많이 나타났다. 또한, 공동식당공간과 시설 내의 공동접대공간을 두는 것에 대하여 노인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양세화 외 2인, 2003).

노인주택에서의 서비스가 노인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서비스요구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 못하다. 대부분의 연구(오찬옥 · 이연숙, 1993; 홍형옥, 2001, 홍형옥 · 지은영, 2003, 홍형옥 외 2인, 2004)는 노인주택에 대한 서비스요구도를 조사한 연구이며 이들 서비스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규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성별이 노후 요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는 작업은 현실적으로 노인주택 관리서비스 문제 접근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의 선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10년도에 노인주거문제에 직면하게 될 서울시에 거주하는 50대이다. 연구대상을 50대로 선정한 이유는 현재 노인과 앞으로 노인이 될 중장년층은 노후에 대한 준비 및 인식에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연령별로 45-54세 군까지는 노후 준비율이 높지만 그 후 연령대에서는 준비율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으며, 현재 중장년층은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거주에 대한 견해에서도 유배우일 경우, 자녀와 함께 살겠다는 비율이 65세 이상 연령군에서 급증하고 있지만 45-54세 집단은 배우자와만 살겠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젊은층에서는 노인시설에 들어가겠다는 응답이 50%를 유지하지만, 65세 이상 집단에서는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이들에 대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앞으로 중장년층이 노인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성별에 따른 노인공동생활주택에서의 서비스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구대상을 예비노인으로 제한하였다.

2)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

연구방법은 질문지(questionnaire)를 이용한 사회조사연구방법이다. 표집은 서울시의 2003년 50대 인구 총 539,207명(통계청, 2003) 가운데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표집확률은 (500/539,207명)×100=0.09272이다. 표집방법은 지역별, 성별, 주택유형별로 3단층화 체계적무작위 추출법(3-staged stratified systematic random sampling)을 이용하였다. 총 500부를 배부하여 498부가 회수되어 498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는 2004년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표집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 구별 50대 인구비율에 따른 조사대상자 수 결정

2단계 : 각 구에서 남여 비율(6.5:10), 주거유형비율별 배부[3)]

1) 남녀 비율이 6.5:10이 되도록 표집

2) 해당 구 50대 가구주의 주거유형비율에 따른 표집

3단계 : 각 구별 무작위로 3개동 선정

3) 조사도구

수요자의 일반적 특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주거특성을 조사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종교유무, 배우자동거유무, 건강상태를 조사하였으며, 사회경제적 특성은 학력, 직업, 소득, 자산을 조사하였다. 주택특성은 주택유형, 주택소유형태, 주택규모, 거주지역을 질문하였다.

종속변수인 서비스는 응급호출서비스, 건강서비스, 가사일서비스, 식사서비스, 주생활관리서비스, 일지원서비스, 교통서비스, 간병서비스, 목욕서비스, 취미여가서비스, 말벗쇼핑보조서비스, 정보서비스, 상담서비스 이상 총13개의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측정은 4점 척도로 하였으며, 1점은 '전혀 필요없다', 4점은 '매우 필요하다'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서비스요구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Window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교차분석, t-검증, 이항로짓분석이 사용되었다.

---

3) 남여의 비율은 2002년 현재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의 남녀비율로 배분하였다. 현재 50대에서는 남여 비율이 높은 차이가 없으나 노인이 되면 여성인구가 많게 되므로 남녀배분 기준은 현재 50대가 아닌 65세이상 남여비율로 정하였다. 구별 65세 이상 남여비율이 5.5:10-7.1:10의 분포를 보였으나, 구별 설문배부수가 크지 않아 실제 설문지를 할당하는데 있어 배부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 평균 6.5:10을 균일하게 하여 구별로 남여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주택유형은 2003년 50대 가구주가 거주하는 주택유형을 기준으로 배분하였다. 주택유형은 구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여 (한 예로, 공동주택비율이 강남구는 79%인 반면 성북구는 15%로 나타남) 구별 주택유형에 비례하여 설문지를 할당하여 조사하였다.

2. 분석모형

우선, 조사대상 성별에 따른 서비스요구에 대한 견해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성별에 따른 서비스 필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t-검증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서비스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로짓(logit)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 전체의 일반적 특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고, 남자집단과 여자집단을 구분하여 각각의 집단에서 각 성별의 일반적 특성이 종속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4점 척도로 측정된 응답내용을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는 '필요하다'로, '전혀 필요하지 않다'와 '필요하지 않다'는 '필요하지 않다'로 리코딩하여 이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로짓모형의 결과를 이용하여 노후의 서비스요구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로짓모형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 추정된다(여윤경 · 정순희, 2004).

$yi^*=\beta x1+\mu i$

$yi=1 \ if \ yi^*>0$

$yi=0 \ otherwise$

즉, 서비스요구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양분할 경우 이 모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모형의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text{logit}(p)=\log(p(1-p))=\alpha+\beta'x$

x는 독립변수들의 벡터이고 p는 1 또는 0으로 응답된 종속변수이며, β는 추정된 계수의 벡터를 나타낸다. 로짓모형의 결과를 이용한 종속변수의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구해질 수 있다(Maddala, 1992).

$p=e^{\text{logit}(p)}/(1+e^{\text{logit}(p)})$

Ⅳ. 결과해석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에 따른 유층표집 결과, 여자가 59.8%, 남자가 40.2%가 표집되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는 60.2%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96.8%로 3.2%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비노인은 자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86.1%, 건강상태가 좋다는 응답은 53.2%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84.2%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65.71만원, 가구총자산의 평균값은 4억7천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은 50대 가구주의 현재 주거유형을 중심으로 유층표집한 결과[4] 단독·다가구주택이 48.6%로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 33.9%, 연립·다세대주택이 17.5%로 나타났다. 주택소유형태는 본인·배우자 소유가 83.9%로 나타났다. 주택규모는 25.7평초과-40평미만이 40.9%로 가장 많이 표집되었다. 거주지역은 서울시 25개구에 따른 유층표집을 하였으나, 구 단위의 표본수가 매우 작기 때문에 25개구를 5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직업만이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3>. 직업은 성별에 따라 뚜렷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업주부, 은퇴, 무직의 비율이 남자에 비해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에 남자는 무직, 은퇴의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50의 경우, 여자의 사회적 활동이 젊은 층보다 적은 반면, 남자들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많은 자료에서 성별에 따른 주요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 소득이 있는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통계청, 2005), 본 조사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응답자 개인이 아닌 응답자 가구에 대한 소득과 자산을 질문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기대빈도와 비교하여 관찰빈도가 많이 나타난 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종교가 없고, 여자가 남자보다 건강이 나쁘다는 것이다. 또한 여자가 2억이하의 자산을 가진 경우가 기대빈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

4) 2000년 서울시 50대 가구주의 주택유형 비율은 단독주택이 62.77%, 아파트 33.97%, 연립주택 18.19%이다. 반면, 2000년 서울시 전체 주택재고는 단독주택 26.05%, 아파트 46.15%, 연립주택 21.09%로 서울시 전체 주택유형과 50대 가구주가 거주하는 주택유형 비율은 차이가 크다.

5) 5개 지역은 강남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동북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서북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서남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도심 (종로구, 중구, 용산구)으로 구분하였다(신광영, 2003).

<표 3> 성별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98)

			남자 f(%)	여자 f(%)	계 f(%)	비고
사회 인구학적 특성	종교	종교 있음	112 (56.0)	187 (63.0)	299 (60.2)	x^2=2.418
		종교 없음	88 (44.0)	110 (37.0)	198 (39.8)	
		전체	200 (100.0)	297 (100.0)	497 (10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 (3.0)	10 (3.4)	16 (3.2)	x^2=.047
		자녀 없음	193 (97.0)	287 (96.6)	480 (96.8)	
		전체	199 (100.0)	297 (100.0)	496 (100.0)	
	배우자	배우자 함께 거주	169 (85.4)	252 (86.6)	421 (86.1)	x^2=.152
		배우자 따로 거주	29 (14.6)	39 (13.4)	68 (13.9)	
		전체	198 (100.0)	291(100.0)	489 (100.0)	
	건강 상태	나쁨	19 (9.5)	38 (12.8)	57 (11.4)	x^2=1.954
		보통	68 (34.0)	108 (36.2)	176 (35.3)	
		좋음	113 (56.5)	152 (51.0)	265 (53.2)	
		전체	200 (100.0)	298 (100.0)	498 (100.0)	
사회 경제적 특성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7 (13.6)	51 (17.3)	78 (15.9)	x^2=4.129
		고등학교 졸업	70 (35.4)	120 (40.8)	190 (38.6)	
		대학교 졸업 이상	101 (51.0)	123 (41.8)	224 (45.5)	
		전체	198 (100.0)	294 (100.0)	492 (100.0)	
	직업	전업주부, 은퇴, 무직	32 (17.1)	**182 (66.4)**	214 (46.4)	x^2=110.499***
		단순노무, 기계장치, 농업	**38 (20.3)**	17 (6.2)	55 (11.9)	
		판매, 서비스, 사무	**83 (44.4)**	49 (17.9)	132 (28.6)	
		기술공, (준)전문가, 의원	**34 (18.2)**	26 (9.5)	60 (13.0)	
		전체	187 (100.0)	274 (59.4)	461 (100.0)	
	소득	200만원 이하	77 (40.1)	117 (33.9)	194 (40.0)	x^2=.286
		200초과-300만원이하	52 (27.1)	74 (25.3)	126 (26.0)	
		300만원 초과	63 (32.8)	102 (34.8)	165 (34.0)	
		전체	192 (100.0)	293 (100.0)	485 (100.0)	
	자산	2억 이하	59 (36.9)	101 (63.1)	160 (100.0)	x^2=1.333
		2억초과-5억미만	59 (41.8)	82 (58.2)	141 (100.0)	
		5억초과	66 (42.9)	88 (57.1)	154 (100.0)	
		전체	184 (40.4)	271 (59.6)	455 (100.0)	
주거 특성	주택 유형	단독 · 다가구 주택	95 (47.5)	147 (49.3)	242 (48.6)	x^2=.167
		아파트	69 (34.5)	100 (33.6)	169 (33.9)	
		연립 · 다세대 주택	36 (18.0)	51 (17.1)	87 (17.5)	
		전체	200 (100.0)	298 (100.0)	498 (100.0)	
	주택 소유 형태	본인 · 배우자 소유	169 (84.5)	247 (83.4)	416 (83.9)	x^2=.794
		전세 · 월세	28 (14.0)	42 (14.2)	70 (14.1)	
		자녀소유	3 (1.5)	7 (2.4)	10 (2.0)	
		전체	200 (100.0)	296 (100.0)	496 (100.0)	
	주택 규모	25.7평 이하	52 (26.3)	69 (23.5)	121 (24.6)	x^2=.965
		25.7평초과-40평미만	76 (38.4)	125 (42.7)	201 (40.9)	
		40평 이상	70 (35.4)	99 (33.8)	169 (34.4)	
		전체	198 (100.0)	293 (100.0)	491 (100.0)	
	거주 지역	강남	41 (20.5)	62 (20.8)	103 (20.7)	x^2=.135
		동북	64 (32.0)	96 (32.2)	160 (32.1)	
		서북	23 (11.5)	36 (12.1)	59 (11.8)	
		서남	60 (30.0)	88 (29.5)	148 (29.7)	
		도심	12 (6.0)	16 (5.4)	28 (5.6)	
		전체	200 (100.0)	298 (100.0)	498 (100.0)	

***p<.001

2. 성별에 따른 주거복지 서비스요구 차이

먼저, 일반적인 전체 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는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성별에 따라 필요도를 t-검증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총13개의 서비스 중에서 성별에 따라 필요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서비스는 주생활관리서비스와 취미여가서비스로 분석되었다.

<표 4> 성별에 따른 복지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t-검증 결과

(n=498)

		남자	여자	t값
		mean	mean	
응급 · 건강 서비스	응급호출서비스	3.61	3.63	-.330
	건강서비스	3.59	3.53	1.096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가사일서비스	3.19	3.27	-1.655
	식사서비스	3.15	3.23	-1.269
	주생활관리서비스	**2.97**	**3.16**	**-3.230*** **
개인생활지원 서비스	일지원서비스	3.09	2.97	1.759
	교통서비스	3.27	3.31	-.590
	간병서비스	3.39	3.40	-.211
	목욕서비스	2.93	2.93	.042
취미 · 상담 서비스	**취미여가서비스**	**3.11**	**3.24**	**-2.058***
	말벗쇼핑보조서비스	2.72	2.84	-1.705
	정보서비스	2.99	3.02	-.404
	상담서비스	3.02	2.97	.710

* 4점 척도: 1점(정말 그렇지 않다), 4점(정말 그렇다)
* p<.05 ***p<.001

주생활관리서비스 필요도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주생활관리를 직접 하기보다 서비스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원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주생활관리를 여자가 맡아 해 왔기 때문에 노후에는 이를 직접하기보다는 서비스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취미여가서비스도 여자가 남자보다 서비스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통계(2005, 고령자통계)에서 보면 남자는 일, 교제 및 여가활동에 보내는 시간이 여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여자는 가정관리에 남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취미여가서비스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더 원하여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3. 성별에 따른 주생활관리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서비스필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해 내기 위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 주생활관리서비스와 취미여가서비스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항로짓분석(binary logit analysis)을 하였다.

주생활관리서비스의 통계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모든 독립변수들이 포함된 모델 I 의 추정결과 -2LL[6]은 317.199로 계산되었으며, 유사(pseudo) R^2는 약.138로 나타났다[7]. 남자만을 분리하여 추정한 모델II의 -2LL값은 151.411로 계산되었으며, 유사(pseudo) R^2는 약.180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집단을 분리하여 추정한 모델 III의 -2LL값은 147.780으로 계산되었으며, 유사(pseudo) R^2는 약.186으로 나타났다.

모델 I 에서 알 수 있듯이, 주생활관리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자 특성은 성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남자인 경우 여자에 비해 주생활관리서비스가 필요 없을 확률이 3.241배($e^{1.176}$)[8]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생활관리서비스 필요에 대한 영향변인을 여성과 남성 표본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모델 II, 모델 III) 각각의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주생활관리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성별 차이

변수		모델	I (전체) 주생활관리서비스 필요=0 / 필요없음=1			II (남) 주생활관리서비스 필요=0 / 필요없음=1			III (여) 주생활관리서비스 필요=0 / 필요없음=1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상수			1.727	1.639	5.623	.076	2.305	1.079	8.139	15.4688	3424.634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여=0)	남(1)	**1.176*** **	**.368**	**3.241**						
	종교유무(없음=0)	있음(1)	.264	.307	1.302	-.163	.447	.849	.460	.468	1.585
	자녀유무(없음=0)	있음(1)	-1.567	1.252	.209	-1.207	1.523	.299	-5.788	15.379	.003
	배우자동거(아님=0)	예(1)	.629	.447	1.876	.681	.672	1.975	.378	.666	1.459
	건강상태		.056	.172	1.058	-.005	.261	.995	.069	.247	1.071
사회경제적 특성	교육년수		.030	.062	1.031	.140	.097	1.150	-.035	.095	.966
	직업 (판매,사무, 서비스=0)	주부, 은퇴, 무직	-.308	.536	.735	.598	.765	1.818	-.980	1.161	.375
		기계장치, 단순노무, 농업 · 어업	-.324	.591	.723	.723	.774	2.061	-1.694	1.347	.184
		(준)전문가, 기술공, 관리자	.740	.527	2.097	1.079	.637	2.942	1.122	1.519	3.071
	가구월소득		.000	.000	1.000	.000	.001	1.000	.000	.000	1.000
	가구총자산		.027	.036	1.027	-.006	.043	.994	.142	.096	1.152
주거특성	주택유형 (단독다가구=0)	연립 · 다세대	.278	.362	.927	.133	.501	1.142	.419	.567	1.521
		아파트	-.680	.378	1.309	-.952	.553	.386	-.373	.570	.688
	소유형태 (전월세 · 자녀소유=0)	본인소유(1)	.213	.424	1.855	.286	.681	1.331	.059	.599	1.060
	주택규모		-.023	.014	.812	-.023	.987	.977	-.026	.019	.974
	거주지역 (도심=0)	강남	-.075	.490	1.321	-.743	.719	.476	.676	.745	1.967
		동북	.269	.606	.507	.954	1.027	2.596	-.201	.786	.818
		서북	.618	.515	1.237	.552	.800	1.736	.770	.697	2.159
		서남	-.208	.669	.977	-.515	.990	.597	.036	1.017	1.037
-2 Log Likelihood			317.199***			151.411***			147.780***		
Cox & Snell R^2			.138			.180			.186		

***p<.001

6) -2Log Likelihood(-2LL)는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데, -2LL이 낮을수록 적합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2LL이 0인 경우 적합도는 완벽함을 의미한다(이학식·김영, 2003).

7) B의 부호가 +이면 어떤 케이스의 그 변수 값이 클수록 내부값이 1(여기서는 필요없음)인 집단에 분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면 변수값이 클수록 내부값이 0(여기서는 필요)인 집단에 가능성이 커진다(이학식 · 김영, 2003).

8) Exp(B)는 e^B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성별의 경우 $e^{.176}$=3.241이 된다. Exp(B)의 값은 각 변수가 1만큼 증가하는 경우 내부값이 1(여기서는 필요없음)에 속할 확률이 몇배인가를 나타낸다.

이것은 성별을 제외하고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주생활관리서비스 필요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자녀가 있건 없건 간에, 건강상태가 좋건 좋지 않건, 소득이 많건 적건, 학력이 높건 낮건 등등의 개인의 특성에 상관없이 성별 그 자체로 주생활관리서비스 요구에 영향이 있음을 알려 주는 단서가 된다. 본 연구의 결과 노인은 성별에 따라 주생활관리서비스의 필요도가 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인주택에서의 서비스 전달에 있어 여성거주자의 주생활관리서비스를 남자에 비해 더욱 정교하고 긴밀하게 계획, 전달해야 할 것이다.

4. 성별에 따라 취미·여가서비스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취미여가서비스의 요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영향변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모든 독립변수들이 포함된 모델Ⅰ의 추정결과 -2LL값은 444.292로 계산되었으며, 유사(pseudo) R^2는 약.087로 나타났다. 남자만을 분리하여 추정한 모델Ⅱ의 -2LL값은 171.405로 계산되었으며, 유사(pseudo) R^2는 약.257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집단을 분리하여 추정한 모델 Ⅲ의 -2LL값은 237.814로 계산되었으며, 유사(pseudo) R^2는 약.145로 나타났다.

모델 Ⅰ에서 알 수 있듯이, 직업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판매, 사무, 서비스 종사자에 비해 기계장치, 단순노무, 농업, 어업종사자들이 취미여가서비스를 필요로 할 확률이 .247배($e^{-1.399}$) 만큼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즉, 기계장치, 단순노무, 농업, 어업종사자들이 판매, 사무, 서비스 종사자에 비해 취미·여가서비스를 요구할 확률이 (1/.247)=4.048배 만큼 증가하게 된다.

모델 Ⅱ는 남자집단만을 따로 분리하여 취미여가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남자집단 내의 영향변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남자집단내에서 취미여가서비스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자집단만을 분리하여 분석한 모델 Ⅲ을 보면, 취미여가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여자집단 내의 영향변인으로 직업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여자집단 내에서 판매, 사무, 서비스 종사자에 비해 기계장치, 단순노무, 농업, 어업 종사자가 취미여가서비스를 필요로 할 확률이 .092배($e^{-2.381}$) 만큼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즉, 판매, 사무, 서비스 종사자에 비해 기계장치, 농업, 어업 종사자가 취미여가서비스를 요구할 확률이 (1/.092)=10.869배 만큼 증가하게 된다.

판매, 사무, 서비스 종사자에 비해 기계장치, 농업, 어업 종사자가 취미여가서비스 필요도를 높게 나타낸 것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직업보다 취미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개인의 특성보다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들 집단이 보다 손쉽게 취미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집단에서는 직업에 따라 차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집단 만을 분류하여 분석한 모형에서는 아무런 영향변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남자들은 이러한 직업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요구가 여자가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 교제 및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통계청, 2005)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6> 취미여가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성별 차이

변수 \ 모델			Ⅰ (전체) 취미여가서비스 필요=0 / 필요없음=1			Ⅱ (남) 취미여가서비스 필요=0 / 필요없음=1			Ⅲ (여) 취미여가서비스 필요=0 / 필요없음=1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상수			3.585	1.344	36.051	-.073	2.089	.929	11.374	15.558	87030.804
인구사회학적특성	성별(여=0)	남(1)	.238	.281	1.268						
	종교유무(없음=0)	있음(1)	-.001	.250	.999	-.388	.412	.678	-.002	.358	.998
	자녀유무(없음=0)	있음(1)	-.015	.925	.985	1.977	1.468	7.219	-6.180	15.466	.002
	배우자동거(아님=0)	예(1)	.169	.376	1.184	.327	.667	1.386	-.174	.517	.841
	건강상태		-.011	.144	.989	.284	.240	1.329	-.177	.203	.837
사회경제적특성	교육년수		-.046	.050	.955	.030	.087	1.031	-.117	.069	.890
	직업(판매,사무,서비스=0)	주부, 은퇴, 무직	-.590	.466	.554	-.831	.732	1.291	-.909	.848	.403
		기계장치, 단순노무, 농업·어업	**-1.399***	**.518**	**.247**	-.560	.744	.567	**-2.381***	**1.061**	**.092**
		(준)전문가, 기술공, 관리자	-.607	.449	.545	-.041	.625	.960	-1.384	.887	.250
	가구월소득		.001	.001	1.001	.000	.001	1.000	.002	.001	1.002
	가구총자산		-.008	.026	.992	-.011	.039	.989	.021	.048	1.021
주거특성	주택유형(단독다가구=0)	연립·다세대	-.006	.275	.994	.726	.461	2.067	-.461	.382	.630
		아파트	-.422	.320	.656	-.305	.533	.737	-.394	.450	.674
	소유형태(전월세·자녀소유=0)	본인소유(1)	-.663	.385	.515	-1.032	.689	.356	-.178	.507	.837
	주택규모		.015	.011	.985	-.017	.022	.984	-.013	.015	.987
	거주지역(도심=0)	강남	-.695	.431	.499	-1.643	.720	.193	-.165	.628	.848
		동북	-.134	.543	.440	1.281	1.236	3.598	-.883	.695	.413
		서북	-.718	.432	.994	-1.148	.765	.317	-.620	.586	.538
		서남	-.821	.598	.656	-.835	.979	.434	-.695	.826	.499
-2 Log Likelihood			444.292***			171.405***			237.814***		
Cox & Snell R^2			.087			.257			.145		

*p<.05 ***p<.001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노후 주거복지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였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예비노인의 서비스필요도는 4점 척도로 알아보았으며, 총13개의 서비스의 남여차이를 t-검증으로 분석하였고, 남자와 여자의 노후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견해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t-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주생활관리서비스와 취미여가서비스를 종속변인으로하고, 남자집단과 여자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그 영향력을 이항로짓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서비스필요도 차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은 성별에 따라서 주생활관리서비스와

취미여가서비스만이 차이를 보였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영향변인을 분석한 결과, 주생활관리서비스는 성별자체가 영향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취미여가서비스는 직업이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생활관리서비스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욱 절실한 서비스로 보이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주생활관리를 돕는 서비스는 특별히 없으며, 복지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집수리사업정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사업도 일상적인 주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보다는 주택을 개조하는 것과 같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생활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영국 보호주택의 만능수리인(handy man)과 같이 순회관리인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취미여가서비스는 조사대상 전체로 분석한 모형에서는 다른 특성보다도 현재의 직업이 영향을 미쳤으며, 여자집단내부에서도 직업이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보다는 직업환경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내부에서 취미여가서비스를 필요로 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대단히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 집단이 손쉽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기관, 교회 등) 속에서 행해지는 취미여가활동을 이들 직업의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성별에 따른 서비스 요구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도 다를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재가복지서비스 전달 및 노인전용주택의 관리와도 연계하여 심층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오찬옥 · 이연숙(1993). 노년기의 상황설정에 따른 노인주거특성에 대한 선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9(2),** 35-45.

홍형옥(2001).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태도와 선호 -한국에서의 노인생활지원주택 개발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47-166.

홍형옥 · 지은영(2004).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지역별 견해 비교 -서울 · 수도권 · 부산 · 광주 ·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5(1),** 163-174.

홍형옥 · 유병선 · 전경화(2004). 노인계획주거 대안 선택 집단에 따른 특성 비교 -일 · 여가 · 서비스 제공수준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5(1),** 129-140.

국토연구원(2004). **노인가구 주거실태 조사.** 안양: 국토연구원.

김정석(2005). 고령화사회의 노인인구와 노인가구의 변화와 전망. **국토 2005, 02,** 6-19.

양세화 · 박희진 · 오찬옥(2003). 노인시설주거의 커뮤니티 구성에 대한 요구. **한국주거학회지, 14(3),** 67-76.

여윤경 · 정순희(2004). 가계의 주식투자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11-21.

원영희(1995). 동별거형태가 한국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5(2),** 97-116.

유성호(2000). 노인과 성인자녀의 별거를 결정하는 변인. **노인복지연구, 8,** 169-175.

유병선(2005). **한국형 노인공동생활주택 공급 및 관리모델 개발방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이인수(2003).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거주하게 된 이유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4(2),** 121-132.

이학식 · 김영(2003). **SPSS 10.0 매뉴얼.** 서울: 법문사.

통계청(2001). **장래인구추계.**

통계청(2005). **고령자통계.**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3). **노인생활실태조사.** 서울: 홍익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Eckert, J. K. & Murry, M. I.(1984). Alternative models of living for the elderly. In I. Altman, M. P. Lawton, & J. E. Wohlwill(eds). *Elderly people and the environment*(pp. 95-128). New York and Lodon: Plenum Press.

Goldschneider, C.(1989). *Living arrangement among the older population: Constraints, preferences, and power.* N. Y.: Westview Publication Co.,

Pynoos, J. & Regnier, V.(1993). *Housing the aged.* London: Elsevier Press.